A Bug in My Pocket



이야기 소개

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'육상 생태계 보호(Life on land)'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올라(Ola)는 벌레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두지만, 엄마는 그 벌레를 밖으로 데려다주라고 말합니다. 다음 날 올라(Ola)는 그 벌레를 찾다가 바위 뒤에서 발견합니다. 올라(Ola)의 엄마는 벌레가 살 수 있는 알맞은 서식지인 '벌레 호텔'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.

이 책을 읽는 팁

이 책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

- 아이는 파닉스 실력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소리를 하나씩 내어 읽고,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.

- 다음 단어들은 자주 쓰이지만,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:
  called people could should
  책을 읽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. 책을 읽다가 이 단어들이 나오면, 필요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.

주제 단어

아이는 주제 단어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아이와 함께 단어의 소리를 하나씩 읽고 이어서 읽은 뒤,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.

leaves (l-ee-v-s):
식물과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서 자라는 초록색 부분

다음 주제 단어는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. 아이가 이름의 소리를 하나씩 읽고 이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Olá (o-l-a)

읽기 전에

- 앞표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? 그렇게 생각한 단서는 무엇인가요?

- 아이가 제목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'bug'는 무엇인가요? (곤충이나 작은 생물)

  질문: 어떤 벌레를 본 적이 있나요?

- 질문: 왜 남자아이는 놀란 것 같나요?

- 아이가 뒷표지를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벌레에게 가장 좋은 집은 어떤 곳일까요?

읽는 동안

- 아이가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. 단어를 읽다가 머뭇거리면, 소리를 하나씩 읽은 뒤 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읽도록 격려해 주세요. 예를 들어 e-n-v-i-r-o-n-m-e-n-t를 읽은 뒤 environment라고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.

- 4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Ola의 엄마는 왜 정원에서 Six의 집을 찾아보자고 했을까요?
  (예: 벌레들은 정원에서 먹이를 찾고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)

- 9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Ola는 왜 그렇게 속상했을까요? Six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?

- 15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'environment'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? (예: 주변 환경)

- 20 페이지까지 읽은 뒤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Ola는 어떻게 벌레 호텔을 만들었나요?

읽은 후

- 질문: 벌레 호텔은 왜 벌레들에게 좋은 집이 될까요? (예: 벌레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, 비바람을 피할 수 있으며,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)

- 질문: 우리는 왜 벌레를 돌봐야 할까요? (예: 벌레들은 환경에 도움을 주기 때문)

- 말해주기: Ola는 벌레 호텔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.

  질문: 완성했을 때 Ola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

- 질문: 벌레 호텔을 만드는 것이 쉬울 것 같나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- 24 페이지의 스토리맵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. 그림을 활용해 아이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도록 격려해 주세요.

[A Bug in My Pocket]	
Cushion	Woodlice
Glasses	Environment
Steppingstones	Box
Stone wall	Rotting leaves
Microscope	Tree bark
Kneel down	Old twigs
Big rock	Big plant
Spider	Bits and pieces
Snail	Bug hotel
Ant	Tomatoes

A Bug in My Pocket



Level 5 Fiction

A Bug in My Pocket (내 주머니 속의 벌레)

이야기 소개

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'육상 생태계 보호(Life on land)'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올라(Ola)는 벌레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두지만, 엄마는 그 벌레를 밖으로 데려다주라고 말합니다. 다음 날 올라(Ola)는 그 벌레를 찾다가 바위 뒤에서 발견합니다. 올라(Ola)의 엄마는 벌레가 살 수 있는 알맞은 서식지인 '벌레 호텔'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.

□ P2: "엄마, 보세요! 제 주머니에 벌레가 있어요!" 올라가 소리쳤습니다.

엄마는 벌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

□ P3: "무서워하지 마세요, 엄마. 사람을 해치지 않을거예요." 올라가 말했습니다.

"점심시간에 발견했어요. 제일 좋아하는 숫자 식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"

□ P4: "내 주머니로 기어 들어왔나 봐요,"라고 올라가 덧붙였습니다.

"식스를 위해 정원에서 집을 찾아주는 게 좋겠구나."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□ P5: 올라는 정원에서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.

□ P6: 다음 날, 올라가 그곳에 갔습니다.

하지만 식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!

□ P7: “엄마! 식스 보셨어요?” 올라가 물었습니다.

“아니, 못 봤단다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□ P8: “우리는 식스를 꼭 찾아야 해요.” 올라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

“정원을 함께 찾아보자.” 엄마가 대답했습니다.

□ P9: 그들은 계속 찾아보았지만 식스를 찾지 못했습니다.

올라는 속상했습니다.

“식스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?”

□ P10: “큰 바위 뒤를 찾아보자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□ P11: “식스!” 올라가 외쳤습니다.

“햇볕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구나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“식스는 그늘을 찾고 있었던 거야.”

□ P12: “식스를 위해 벌레 호텔을 만들어 줄 수 있겠네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“벌레 호텔이 뭐예요?” 올라가 물었습니다.

□ P13: “이건 식스 같은 거미, 벌레, 쥐며느리를 위한 집이야,” 엄마가 대답했어요.

□ P14: “벌레들은 벌레 호텔에서 쉴 수 있어.
그들은 새 같은 더 큰 동물들로부터 안전하단다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□ P15: “벌레는 환경에 도움이 돼. 잘 돌봐주는 게 중요해.” 라고 엄마가 말했어요.

□ P16: “벌레 호텔은 어떻게 만들어요?” 올라가 물었습니다.

□ P17: “먼저 화분이나 상자가 필요해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“그리고 썩은 나뭇잎, 나무껍질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가 필요해.”

□ P18: “다음으로, 나뭇잎과 껍질, 나뭇가지를 상자 안에 넣어.” 엄마가 알려주었습니다.

□ P19: “마지막으로 그 상자를 축축한 곳에 두면 된단다.” 엄마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.

“식스는 습한 환경을 좋아할 거야.”

□ P20: 올라는 벌레 호텔을 만들었습니다.

“해냈어요! 완성됐어요!” 그가 말했습니다.

“이름은 ‘올라의 벌레 호텔’로 할 거예요.”

□ P21: 올라는 벌레 호텔을 놓을 축축한 장소를 골랐습니다.

그리고 엄마를 불러 와서 보라고 했어요.

☐ P22: “식스가 새 집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” 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

☐ P23: “나도 그렇게 생각해.” 엄마가 대답했습니다.

“이제 정리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자.”

☐ P24: 이야기를 다시 말해 보세요